

# ‘뉴욕의 거장들’, 광주 상륙… 현대미술 걸작 선보인다

10월까지 ACC 10주년 특별전  
문화창조원 복합6관…작품 36점  
뉴욕의 20세기 추상미술 조명  
‘잭슨 폴락’ 2000억 작품 ‘압권’  
티켓 2만여장 선판매 기대감 ↑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 등 ‘뉴욕의 거장들’의 명화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에 상륙했다. 20세기 미국 추상미술 황금기의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광주에서 마련되면서 미술 애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ACC재단은 17일, ‘뉴욕의 거장들’ 전시 개막을 앞두고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언론에 작품을 공개했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21명의 작가가 남긴 원화 36점이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전시는 뉴욕 유대인 박물관과 이스라엘 박물관, 폴록-크레이스너 재단이 소장한 주요 컬렉션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전시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뉴욕이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과정을 여섯 개의 섹션으로 풀어냈다.

△1부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전통에서



한이준 도슨트가 17일 광주광역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열린 ‘뉴욕의 거장들’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잭슨 폴록의 ‘수평적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벗어나 자유로운 감정을 붓으로 풀어낸 예술가들의 도전정신을, △2부 ‘꿈을 넘어선 도전’에서는 초현실주의의 영향 아래 무의식과 꿈, 내면의 세계를 추구한 실험적 표현들을 선보인다.

△3부 ‘어반 캔버스’에선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추상의 무대가 됐는지를 조명하며, △4부 ‘추상과 색면회화’는 색채의 물성을 탐구한 작가들의 시도가 이어진다. △5부 ‘미니멀리즘과 그 후’는 1960년대 유대인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소개한 미니

멀리즘의 정제된 형식미를, △6부는 잭슨 폴록의 창작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의 백미는 단연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작품이다.

폴록의 ‘수평적 구조’는 드리핑 기법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대 말 작품으로, 추정 가치만 2000억원에 이른다. 캔버스에 붓을 대지 않고 물감을 흘리는 액션페인팅 방식은 관람객에게 시각 이상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마크 로스코의 ‘십자가’는 국내 첫 공개

작이다. 로스코는 인간 내면의 고통과 숭고함, 종교성을 추상적으로 탐구한 색면화로 명성을 얻었다. 이 작품은 강렬한 색채 대비와 단순한 구조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진다.

이 밖에도 아돌프 고틀리브, 바넷 뉴먼, 모리스 루이스, 리 크레이스너 등 당시 뉴욕을 중심으로 활약한 작가들의 대표작들이 전시장에 함께했다. 특히 전시장 입구에 배치된 리 크레이스너의 무제 작품은 강렬한 선과 면으로 관객을 전시의 흐름 속으로 이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수·금·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관람객 50명을 대상으로 ‘스페셜 도슨트’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는 폴록의 드리핑 기법을 직접 체험하며 추상표현주의의 정신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ACC재단 관계자는 “관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했다”며 “예술을 ‘보는’ 전시에서 ‘참여하는’ 전시로 확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이어진다. 관람권은 성인 1만3000원, 청소년·어린이 1만원이며, 광주·전남 지역민에게는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매는 카카오톡, 네이버, 티켓링크, 인터파크 등에서 가능하다.

전시 개막 전부터 관람권 2만장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기대감이 높다. ACC재단은 전국 각지의 미술 애호가와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슨트 한이준 씨는 “국내에서는 주로 인상주의 중심의 유럽미술 전시가 많았던 반면,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격동적이었던 뉴욕의 실험정신을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기회”라며 “특히 광주에서 이러한 수준의 원화 전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에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 21일 취임식 및 공식 활동 시작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로 윤범모(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선임됐다.

17일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9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로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이상갑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지난 5월 사임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윤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다음달 말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과 내년에 열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회 측은 윤 대표이사가 민중미술을 기반으로 한국미술 연구에 공헌해



운영 경험이 있는 점을 최종 선임 배경으로 설명했다.

윤 대표이사는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에 등단한 뒤 한국미술사 연구를 수십 권의 저서로 지속해 온 미술사학자이자 비평가로 가천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와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날 재단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임된 윤 대표이사는 1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2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박찬 기자



## 루마니아 국제콩쿠르 석권한 한국 클라리넷

### 안유빈 1위·서예빈 2위

루마니아에서 열린 클루지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한국의 젊은 클라리네티스트 두 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금호문화재단은 지난11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에서 열린 ‘2025 클루지 국제 음악 콩쿠르’ 클라리넷 부문에서 안유빈(24)이 1위, 서예빈(24)이 2위를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유빈은 상금 524만원과 함께 808만 원 상당의 프랑스 부페 크람폰사 악기 바우처를 받았으며, 트란실바니아 주립 필하모닉 등 현지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를 얻었다.

서예빈도 상금 349만원과 646만원 상당의 바우처, 아라드 주립 필하모닉과의 협연 기회를 부여받았다.

두 사람 모두 금호영재콘서트 출신으로, 안유빈은 에스토니아 탈린과 오사카, 루마니아 야시 등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오는 시즌에는 핀란드 쿠오피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으로도 활동한다.

서예빈은 동아음악콩쿠르와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오디션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재학 중이다. 1984년 시작된 클루지 국제 음악 콩쿠르는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관악 콩쿠르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김성수 기자·연합뉴스

## “각화문화의집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즐겨요”

### 내달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연극·무용 융합 프로그램

가족 간 유대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을 통한 감정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연극과 무용을 융합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문화의집은 ‘몸으로 토크, 마음으로 쿵쿵!’을 다음달 9일부터 10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빛과 음악, 색깔을 활용한 연극놀이 및 움직임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연극의 핵심 요소인 ‘타인의 감정 이해’에 집중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

족 간 소통의 깊이를 더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색깔을 활용해 감정 탐색하기 △빛과 음악, 그림자를 활용한 움직임 놀이 △역할극과 즉흥극을 통한 경청과 공감하기 △우리 가족 이야기로 꾸미는 발표회 등이다.

각화문화의집 관계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해 ‘몸’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과정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도록 구성했다”며 “이러한 감정소통 기반의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프로그램 포스터에 QR코드를 통해서 하거나 각화문화의집 전화 접수로 할 수 있다.

박찬 기자

## 광주문화재단, 문체부 장관상 수상… “문화협치 실현 입증”

### 문화예술교육 전략적 지역화 등 전국 우수사례 1위 선정 ‘영예’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지역문화혁신분야 우수사례 1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에는 전국 154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 중 5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광주문화재단은 ‘꾸준히! 새롭게!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화 전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문화재단의 이번 수상은 문화협치를 실현한 실천력에 있다는 평가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6월, 문화·예술·교



지난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에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육 분야의 광주 지역 유관기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광주 유아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주관 부처와 소관이 다른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과 공동과제 발굴로 이어졌으며, 정책 연대모델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대폭 강화한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박찬 기자